DAY 50 · 5부 안을 들여다보기

AI가 모르는 걸 물으면 어떻게 할까? — 책 펴놓고 답하기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26일

외워서 답하면 지어내기 쉽지만, 찾아서 펴 놓고 답하면 근거가 남아.

한 줄로 말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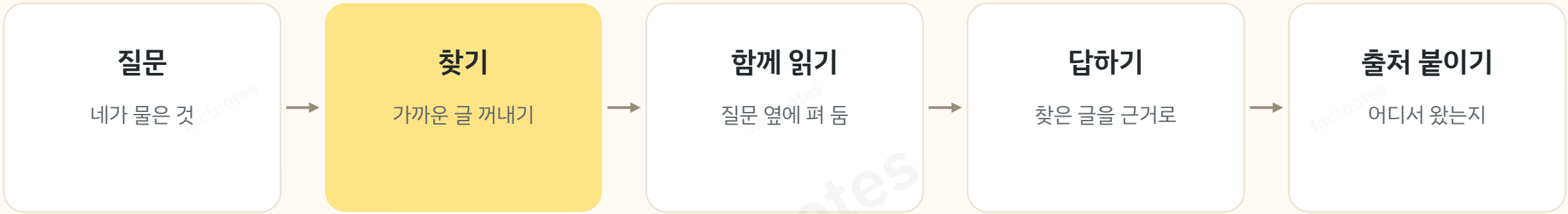
1. 외운 것만으로 답하면 모르는 건 그럴듯하게 지어내기 쉬워. 그래서 답하기 전에 **관련된 글을 먼저 찾아와** 옆에 펴 두는 방법을 써.

2. 찾는 방법이 바로 어제 배운 거야. 질문을 숫자 묶음으로 바꿔서 **가까운 자리에 있는 글 조각**을 꺼내 와.

3. 그러면 시험이 아니라 오픈북이 돼. **찾아온 글을 같이 읽으며** 답하니까 새로 나온 내용도 다룰 수 있고,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밝힐 수 있어.

그림 한 장으로

질문에서 출처까지



좋은 점은 모델을 다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. 펴 놓는 글만 새것으로 갈아 끼우면 답도 따라서 새로워져. 대신 찾아온 글이 틀리면 답도 같이 틀려.

핵심: 외워서 답하기 대신, 찾아서 펴 놓고 답하기

오픈북으로 답하는 순서

답하는 큰 순서

1. 질문을 받는다
2. 관련된 글을 찾는다
3. 글과 질문을 함께 읽는다
4. 답을 만든다

핵심은 찾는 걸음이 답하는 걸음보다 앞에 온다는 거야. 먼저 찾아서 펴 두고, 그걸 보면…

글을 찾는 속 순서

1. 글을 잘게 쪼갠다
2. 조각을 숫자로 바꾼다
3. 질문도 숫자로 바꾼다
4. 가까운 조각을 꺼낸다

책 한 권을 통째로 들이밀면 너무 길어서 못 읽어. 잘게 쪼개 숫자로 바꿔 두고, 질문과…

출처를 붙이는 순서

1. 답에 쓴 문장을 고른다
2. 어느 조각에서 왔는지 본다
3. 그 글의 이름을 붙인다

답을 만들 때 쓴 조각이 남아 있으니까 어디서 온 말인지 되짚을 수 있어. 챗봇 답 밑에…

섞인 조각을 맞는 순서대로 눌러 봐. 답하는 큰 순서, 글을 찾는 속 순서, 출처를 붙이는 순서까지 세 세트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50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'책 펴놓고 답하기'의 순서로 맞는 건?

① 답을 먼저 만들고 글을 찾는다
② 질문을 받고, 관련 글을 찾고, 그걸 보며 답한다
③ 글을 통째로 외운 뒤 답한다
④ 질문을 짧게 줄여서 답한다

Q2 질문에 맞는 글 조각은 어떻게 찾을까?

① 가나다순으로 앞에 있는 것
② 가장 긴 조각
③ 질문과 숫자 묶음 자리가 가까운 조각
④ 가장 최근에 만든 조각

Q3 이 방식의 좋은 점이 아닌 것은?

① 새 내용에 맞출 수 있다
② 출처를 밝힐 수 있다
③ 다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
④ 늘 정답만 나온다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② 찾는 걸음이 답하는 걸음보다 앞에 와. 먼저 관련된 글을 꺼내 옆에 펴 두고, 그걸 읽으면서 답을 만들어.

Q2

③ 어제 배운 그대로야. 글 조각과 질문을 모두 숫자 묶음으로 바꿔 두고, 거리가 가까운 조각을 몇 개만 꺼내 와.

Q3

④ 찾아온 글이 틀렸거나 엉뚱하면 답도 같이 틀려. 펴 놓은 책이 잘못된 책이면 오픈북도 소용없는 거랑 같아.

외워서 답하면 지어내기 쉽지만,
찾아서 펴 놓고 답하면 근거가 남아.



내일은 따로 더 가르치기 — 책을 펴 주는 대신 아예 더 가르치면 뭐가 달라질까.